

김정일시대 주요 통치담론의 실천상 특징에 관한 고찰

김 태 운* · 노 찬 백**

| | |
|-----------------------------|-----------------------|
| I. 서론 | III. 개별 통치담론들의 실천상 특징 |
| II. 김정일시대 주요 통치담론들과 그 내용 | IV. 결론 |

Abstract

Study of Practical Features of the Main Control Discourse of the Kim Jong-il Era.

This study examines the practical features of the main discourse on the rule of the Kim Jong-il era. The main ideas, such as Bulguengi Sasang, Sungun Jungchi, and Kangsung Daeguk Theory, are prone to be practical and policy-oriented rather than merely symbolical. These ideas also pose organic relationship in its role as an essential connection between ideas and troops.

The practical characteristics of the “control discourses” show the common traits that there was an altered use of pure ideology before practicing it and that law and regime have been systematically built in order to practice the discourse ideas.

About the future prospects of the main control discourse, one can say that these will probably maintain their original forms but may change the degree of their emphasis depending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s. The Bulguengi Sasang is expected to be inconspicuous for the time being since the North Korean regime is viewed not to be in the danger of collapse. However, Sungun Jungchi and Kangsung Daeguk Theory will continue their emphasis due to their policy-oriented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frequent emphasis will be placed on the Kangsung Daeguk Theory, as it is very closely related to North Korea’s New Development S -trategy.

Key Words: control discourse, Bulguengi Sasang, Sungun Jungchi, and Kangsung Daeguk Theory, policy-oriented

*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초빙객원 교수

** 광주보건대학 교수

I. 서론

북한은 김일성 사후 4년여 만에 과도체제를 정리하고 1998년 김정일정권을 공식 출범시켰다. 김정일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여러 면에서 김일성시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치담론¹을 중심으로 하여 체제 전반이 운영·통제되고 있다. 즉 붉은기 사상을 비롯하여 강성대국론, 선군정치 등은 김정일시대를 대표하는 주요 통치담론으로서, 이들은 구성원들을 종속화시키는데 있어서 그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대외정치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현재의 북한체제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다.² 특히 상징적 의미 이상의 현상 타파적이고도 정책 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의 통치담론들보다 더 주목되고 있다.

본 논문은 김정일체제 출범 이후 북한체제의 주요 통치원리로 작동되고 있는 이러한 통치담론들의 이해와 그 실천상 특징 규명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갖게 될 것이다.

첫째, 1990년대 이후 등장한 주요 통치담론들의 대두 배경과 그 내용 및 성격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이러한 통치담론들의 실천상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김정일시대 통치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개별 통치담론들에 대한 이데올로기 차원의 의미론적 분석과 더불어 실천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미론적 분석은 기존의 연구들을 통하여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으나, 실천상 특징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 결과들이 많지 않다. 따라서 주요 통치담론들에 대한 현재 우리의 이해도 포괄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일성시대와 달리 현재 주요 통치담론들은 상징적인 차원을 넘어 실천적이고 정책 지향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으며, 구성원들에 대한 동원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실천 과정상의 특징을 분석하는 작업은 주요 통치담론의 포괄적 이해를 위한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¹ 통치담론이란 최고지도자나 집권층이 자신들의 이해를 통합하고,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상징과 가치체계를 생산하는 과정을 포함해 대중과 반대세력의 대응을 포괄하는 통태적 과정의 전반을 의미한다. 강명구·박상후, “정치적 상징과 담론의 정치: 신한국에서 세계화까지,” 『한국사학회』, 제31집 (1997), p. 125.

² 김도중, “남북정상회담과 국내 정치: 과제와 전망,” 『통일경제』, 통권 제72호 (2000. 12), p. 77.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향후 통치담론들의 지속 여부 및 변화 가능성 등에 대해 전망해 볼 것이다.

북한체제의 특성을 나열하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연상되는 단어는 선동적인 구호와 표어, 그리고 다양한 통치담론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은 구호의 나라이자 통치담론이 지배하는 국가로 규정될 수 있을 정도로 정권 수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구호와 표어,³ 그리고 다양한 통치담론들이 등장했다. 따라서 이러한 김정일시대의 주요 통치담론 역시 체제 일반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따라서 특정의 통치담론을 바탕으로 하여 어떠한 함의를 분석·전망해 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붉은기 사상을 비롯해 강성대국론, 선군정치 등은 오늘날 여러 분야에서 북한체제를 견인하는 추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들에 대한 실천상 특징 분석은 기존의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의미론적 연구 결과들과 함께 북한체제 전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줄 것이다.

한편, 북한의 통치담론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차원의 의미론적 분석과 대중 동원을 위한 하나의 변용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⁴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II. 김정일시대 주요 통치담론들과 그 내용

1. 붉은기 사상

붉은기 담론은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냉전의 종식, 구소련의 해체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북한의 체제붕괴 위기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1989년 12월 루마니아의 오랜 독재자 차우세스쿠의 처

³ 북한에서 사용되는 갖가지 선동적인 표어와 구호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표어란 “일정한 사회정치적 요구나 투쟁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을 자극하고 호소력을 지닌 간결한 글”로 정리할 수 있으며, 구호란 “대중을 동원하기 위해 일정한 사상, 과업 욕구 등을 간결한 형식으로 나타낸 호소 또는 그것을 표현한 글로서 대중집회를 통하여 주로 제기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⁴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전효관, “북한의 정치담론: 의미와 과정과 그 변화,” 『북한연구학회보』, 제7권 2호 (2003); 김근식, “1990년대 북한의 체제정당화 담론: ‘우리식 사회주의’와 ‘붉은기철학’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8권 2호 (1999) 등을 참조.

형은 북한지도부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⁵ 또한 한국정부의 북방정책 성공으로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던 동구 공산권 국가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국과 수교를 맺게 되자 북한의 외교영역은 현저히 축소되었다. 게다가 중국과 소련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간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북한의 국제고립 및 피포위 의식은 절정에 달했다.⁶

한편 북한의 주변 동맹국 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한국전쟁 이후 줄곧 혈맹의 관계를 유지해 왔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국가간 제반 관계 조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대외환경의 변화는 북한에 있어서 안보위기와 함께 대내외 경제관계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북한 경제는 탈냉전시작 이후부터 1990년대 말까지 계속적인 마이너스 경제를 기록하게 되었다.⁷ 아울러 구소련이 해체되고 동북아에서 미국이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게 되자, 북한은 지속해 왔던 냉전시대의 대내외 정책이나 전략에 전면적인 수정을 가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김일성이 사망한 상황에서 미국과는 핵문제로 인해 첨예한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등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하여 돌파구 마련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995년 8월 28일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 총체적인 난국에서 그 어떠한 변화나 동요를 보이는 대신 ‘붉은 깃발’, 즉 변화하지 않는 붉은기의 상징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⁸ 붉은기와 관련된 통치담론체계를 마련하였다.

이처럼 붉은기 담론의 등장 배경은 탈냉전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최고지도자의 사망 등 북한의 대내외 정치·경제·군사·안보 등의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북한은 1980년대 말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권의 붕괴를 목도하면서 체제단속의 절실함을 느끼고 1990년대 들어 주체사상의 차별성과 우월성을 부각시키면서 ‘우리식 사회주의’⁹라는 개념을 강조했다.¹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악화되어가는 대내외적 정치·경제·군사·안

⁵ 루마니아의 사태가 있기 전에 『로동신문』 국제면에는 차우세스쿠가 자주 등장했다. 즉, 차우세스쿠의 영도력으로 인해 루마니아가 번영하고 있다는 기사였다. 김창희, 『김정일의 딜레마』 (서울: 인물과 사상, 2004), p. 137.

⁶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 (서울: 일신사, 1997), pp. 213~216.

⁷ 정성장·백학순 공저, 『김정일정권의 생존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2003), p. 13.

⁸ 리종태·동태관, “붉은기를 높이 들자,” 『로동신문』, 1995년 8월 28일.

⁹ 북한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우리 당과 인민이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사회주의”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과학원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의 사회주의건설령도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p. 153.

보 등의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는 북한 지도부의 인식이 크게 작용하면서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통치 및 실천 이데올로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붉은기 사상은 1994년 11월 1일 김정일이 로동신문에서 발표한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통해 “나의 사상이 붉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¹¹ 붉은기 담론은 이후 붉은기 철학과 붉은기 사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붉은기 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995년 8월 28일 로동신문 정론에서 “굴종을 모르는 인간의 높은 존엄과 불타는 정열이 진한 피로 물들여져 있는 붉은기는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과 희망의 표대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굳은 신념의 상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 붉은기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¹²

1996년에 들어와 이러한 붉은기 담론은 정치적 구호나 슬로건화 되었으며, 김일성 사망 후 북한사회의 지배담론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북한은 이러한 지배담론을 “주체의 혁명철학, 일심단결의 혁명철학, 그리고 신념의 철학”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이를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라고 하였다.¹³ 여기서 주체의 혁명철학은 붉은기 사상이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이념적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붉은기 사상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기식대로 살아나가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창조의 철학”¹⁴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원칙은 1996년 1월 9일 로동신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즉, “붉은기 사상은 우리 인민을 위대한 자주적 인민으로 되게 하고, 우리 혁명을 자주와 창조의 길로 진전시켜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¹⁵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일심단결의 철학은 붉은기 사상의 행동원칙을 말하는데, 혁명은 단결로부터 시작되고 단결에 의해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단결이야말로 혁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붉은기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행동원칙인

¹⁰ 이교덕 외, 『북한체제 분야별 실태 평가와 변화 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 과정과의 비교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148.

¹¹ 김정일이 발표한 이 논문에서 김정일은 “나의 사상은 붉다”라고 말했음을 언론매체들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동신문』, 1994년 11월 1일.

¹² 사회과학연구소 편,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458.

¹³ “붉은기는 조선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

¹⁴ 『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

¹⁵ 『로동신문』, 1996년 1월 9일.

것이다.

신념의 철학은 체제 고수를 위한 논리로서 혁명하는 사람이 견지해야 할 규범을 의미한다. 이는 붉은기가 혁명의 신념을 상징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북한에서 붉은기 또는 붉은색은 한 번 다진 신념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즉, 사회주의 혁명과 체제보전을 위해 목숨으로 신념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나아가 북한은 이러한 신념의 철학을 수령에 대한 충성과 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것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

붉은기 통치담론의 실천적 측면의 요체는 고난의 행군정신과 혁명적 군인정신 그리고 수령 결사 용위정신이다. 북한은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우리식 사회주의를 압살하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에서 커다란 장애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조성된 정세와 현실의 발전 요구에 맞게 전체 인민들이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싸워나가자”¹⁶고 강조했다. 또한 1996년 10월 18일자 로동신문에서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득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당의 붉은기 사상의 제일체현자이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전위투사이다”¹⁷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혁명적 군인정신에는 붉은기를 높이 들고 전진하는 혁명적 전사들이 지녀야 할 정신적 품모가 전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수령용위 결사정신은 1997년 북한의 신년공동사설을 통해서도 실천적 요체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붉은기 사상은 본질에 있어서 혁명의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이며 령도자와 생사운명을 같이 하려는 수령결사 용위정신”¹⁸이라고 하면서 김정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8년 이후부터 2000년까지 북한에서 붉은기에 대한 언급이 뜸했으나,¹⁹ 2001년 이후 다시 로동신문의 사설 등에서 붉은기와 관련된 언급들이 자주 등장했다. 특히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붉은기와 관련된 표현이 11회나 등장했는데, 무엇보다도 “21세기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라고 강조하였다.²⁰

¹⁶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

¹⁷ “모두다 혁명적 군인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로동신문』, 1996년 10월 18일.

¹⁸ 『로동신문』, 1997년 1월 1일.

¹⁹ 로동신문 사설 등에서 붉은기에 대한 언급은 1996년 12회, 1997년 12회, 1998년 5회, 1999년 1회, 2000년 1회 등장했다. 배성인, “김정일체제의 지배담론: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1호 (2001), p. 42.

이와 같이 실천적 측면에서의 붉은기 담론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통해 최고지도자와 군인들 사이에 불패의 혼연일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력갱생을 도모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 몸을 바치는 자기 희생정신, 절대성, 무조건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령옹위 결사정신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체제수호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²¹

이러한 붉은기 담론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도체제를 유지하려는 북한 지도부의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논리이며, 북한의 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강성대국론

북한은 1998년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열린 『전국자력갱생모범일군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공식 마감하고 혁명과 건설에서의 당면목표를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 있음을 공식 천명하였다.²² 이것이 강성대국론의 시초라고 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통치담론화 된 것은 김정일체제의 공식적 출범에 즈음한 1998년 8월 22일자 로동신문 정론을 통해서이다.

동 정론은 “착취와 억압, 가난과 무지, 침략과 약탈, 지배와 예속으로 얼룩진 지난 시대의 반동적, 반인륜적 국가건설사에 종지부를 찍고 인민의 자주적 요구, 인류의 념원을 전면적으로 꽃피워 주는 영원한 이상국”이라며 강성대국을 정의하였다. 또한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이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대국가수반 앞에, 조국과 민족 앞에 다지신 애국충정맹약이며, 조선을 이끌어 21세기를 찬란히 빛내려는 담대한 설계도”라고 설명하였다.²³ 이처럼 북한은 김정일시대 국가비전의 하나로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줌으로써 또 다른 방식으로 인민들을 동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할 수 있는 담론이 필요했던 것이다. 특히 북한은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쥐는 것으로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강성대국 건설의 기본이 사상과

²⁰ 『로동신문』, 2001년 1월 1일.

²¹ 광승지, “북한의 붉은기 사상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 『통일경제』 (1997. 5), pp. 59~61.

²² “자력갱생의 기치 높이 강행군 앞으로,” 『로동신문』, 1998년 2월 3일.

²³ 최칠남·동태관·전성호, “강성대국,”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군대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데, 실제 북한은 “사상의 강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튼튼히 세우고, 그 위력으로 경제건설의 눈부신 비약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장군님의 주체적인 강성대국 건설방식이다”라고 하며 김정일시대 대내외 정치에서 사상과 군을 중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성대국의 구체적인 실천 방식은 우선적으로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경제강국화로 간다는 것이다.²⁴ 즉, 강성대국론에서는 일차적으로 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강국을 만든다는 다소 단계적 완성방식을 지향하는 정책 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일심단결, 자력갱생, 그리고 결사투쟁의 정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가 2000년에 발간한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사상』에 나타난 강성대국론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강성대국이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강성대국건설론이란 김정일이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효심이 발현되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발현되며 김정일의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이 구현된 것이다. 사상강국이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옹위결사정신의 결정체이며 반동적 사상과 부르조아생활양식을 철저히 배격하는 나라이다. 정치강국이란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고 전체 인민의 일심단결이 가장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며 국제정치무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나라이다. 군사강국이란 주체적인 군중시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며 전국이 요새화되고 전민이 무장하고 군대와 인민이 하나로 일심단결된 나라이다. 경제강국이란 자립성과 주체성이 철저히 보장된 민족경제를 가지며 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화되고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과학화되어 있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는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²⁵

이러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강성대국론은 우선, 사상강국 건설과 관련하여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이 강조한 붉은기 사상을 고수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1998년 9월 7일 중앙방송 논설에서 “우리 조국이 사상의 강국으로 되는 것은 또한 전체 인민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²⁴ 『로동신문』, 1998년 8월 22일.

²⁵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을 참조.

그에 기초해서 일심단결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²⁶라고 주장했다. 또한 2000년 8월 9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우리는 일심단결로 혁명의 붉은기를 고수해 온 것처럼 2000년대에도 일심단결로 강성대국 건설위업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승리를 이룩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했다.²⁷ 2000년 11월 20일자에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위력한 무리로 틀어쥐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힘있게 벌어나가자”라고 강조하면서 사상 혁명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²⁸

다음으로 군사강국 건설과 관련하여 보면 이는 선군정치의 논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즉, 당의 영도적 역할과 군대의 모델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특히 ‘선군정치’의 기치하에 군이 앞장서서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강국 건설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 경제를 활성화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시키면 우리 조국은 모든 면에서 강대한 나라로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을 당면과제로 제시하였다.²⁹ 특히 경제건설이 강성대국건설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로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야별 수행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과학기술에 대해서는 강성대국 건설의 힘 있는 추동력이라고 평가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다.³⁰ 2000년 신년 공동사설에서 3대 기둥의 하나로 제시된 과학중시 사상은 2000년 7월 4일 “과학중시 사상을 틀어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는 제하의 로동신문 논설에서 그 내용이 구체화되었다.³¹ 이러한 강성대국 건설에서 경제 분야의 중요성은 1998년 이후 빈번한 김정일의 현지지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1999년 말부터 김정일은 경제사업에서의 실리보장을 특별히 강조하였다.³²

이처럼 강성대국론은 등장 이후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강성대국이란 사상·정치·군사·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주·자립·자위가 실현된 국가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²⁶ “우리 조국은 사상의 강국이다,” 『조선중앙방송』 논설, 1998년 9월 7일.

²⁷ 『로동신문』, 2000년 8월 9일.

²⁸ 『로동신문』, 2000년 11월 20일.

²⁹ 『로동신문』, 1998년 9월 9일.

³⁰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로동신문』, 1999년 1월 1일자 사설

³¹ “과학중시 사상을 구현하여 강성대국의 앞길을 열어나가,” 『로동신문』, 2000년 7월 4일.

³² 『중앙일보』, 2000년 4월 25일.

2002년부터 최종단계에서 추진되고 있다.³³

3. 선군정치

북한은 김정일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형적인 군사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선, 국가의 최고 통치권자가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군의 수뇌가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되었다. 또한 대내외 정치에 있어서 군을 앞세우는 정치를 펼치고 있음은 물론 이를 공식적인 대내외 통치원리로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군정치’의 등장은 1997년 10월 7일 중앙방송 정론을 통해서부터라는 주장도 있고, 1998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기념일에 나온 선군혁명사상·선군혁명영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은 “1995년 1월 1일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신 날은 이 땅우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역사의 날”이라고 주장하면서 1995년을 선군정치 시작의 해로 주장하고 있다.³⁴

그러나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실제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군 최고 사령관으로서 북한을 통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³⁵ 즉 김일성 사후 북한에서는 국가 수반과 당총비서가 공석인 채, 모든 당과 국가의 조직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과도기 상태가 지속되었으며, 이에 김정일은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일종의 과도기적 군사 비상체제를 가동시켰던 것이다. 이는 김일성 사망 후 로동신문 등의 사설에서 나타난 김정일의 군 중시 태도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1995년도에는 로동신문의 사설에서 군사 분야에 대한 강조는 그다지 높지 않았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통합이 더 중요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³⁶ 그러나 1996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³³ 배성인, “김정일정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치담론과 담론의 정치,”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185~208.

³⁴ 『로동신문』, 2000년 11월 18일.

³⁵ 김정일이 공식적인 군사지도자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부터이다. 이후 1991년 12월 24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었으며, 1992년 4월 20일에는 원수 칭호를 수여 받았다. 199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당, 정, 군에 걸쳐 통치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pp. 23~24.

³⁶ 전현준, 『김정일정권의 분야별 정책변화 추이분석 -로동신문 사설, 정론, 논설을 중심으로-

점차 북한사회에서 군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1996년 1월 1일자 로동신문 사설은 “온 나라에 군사를 중시하는 기풍을 세우자”, 같은 해 10월 18일자 사설에서는 “모두 다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³⁷ 라는 구호가 등장하며 선군정치 of 본격화 시대를 예고하였다. 1997년 들어 로동신문에서 군에 대한 강조비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이 시기는 체제 내적으로 북한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서, 사회일탈 현상 및 체제동요의 징후 등으로 인하여 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었던 것 같다. 주목할 만한 로동신문 사설로서, 5월 19일자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자”라고 했으며, 6월 10일에는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사회주의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라고 하였다.³⁸

1998년에도 군에 대한 강조는 계속되었다. 4월 25일자 사설에서 ‘선군혁명령도’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10월 10일자 사설에서는 이러한 군 중시사상을 “김정일 동지의 기질이자 우리 당의 기질이고 김정일동지 식이자 우리 당의 혁명방식이다”라고 주장하였다.³⁹ 한편, 김정일의 이와 같은 군 중시 사상의 강조는 1998년 10월 20일자 ‘조선중앙방송’ 논설을 통해 ‘선군정치’라는 용어로 최종 정리되었다.

북한은 1999년에 들어와 ‘선군정치’라는 용어를 바탕으로 점차 이를 정치, 경제, 사회를 비롯한 전 분야로 확대시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1999년 6월 16일자 로동신문에서 “선군정치 방식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이다”⁴⁰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 ‘선군사상 일색화’를 주창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4년 1월 19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나타나는데,⁴¹ 1월 24일자 로동신문에서는 이에 대한 당위성이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총대의 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키고 세기를 주름잡는 창조적 변혁을 이룩하며 온 사회가 인민군대의 모습으로 일색화되어 나가는 것이 선군시대 우

1994~2001』(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86~87.

³⁷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 10월 18일 사설 참조.

³⁸ 『로동신문』, 1997년 5월 19일; 6월 10일 사설 참조.

³⁹ 『로동신문』, 1998년 4월 25일; 10월 10일 사설 참조.

⁴⁰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⁴¹ “선군의 기치 높이 정치사상전선을 철벽으로 다져나가자,” 『로동신문』, 2004년 2월 19일.

리 조국의 참모습이다. 군인품성은 우리 시대 인간들이 지녀야 할 혁명가적 품성의 최고정화이다. 군인품성에는 혁명가들의 제일생명인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되어 있으며, 강성대국건설자로서의 투쟁정신과 창조적 기질, 담력과 배짱이 맥박치고 있으며 21세기 인간들이 지녀야 할 고상하고 문명한 문화적 소양과 아름다운 정서가 집대성되어 있다. 백두산 빨치산의 아들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슬하에서 배우고 가꾸어 온 우리 인민군 군인들의 품성이야말로 가장 혁명적이고 고상한 것이다. 인민군대의 군인품성을 적극 따라 배우는 데 선군시대 인간완성의 지름길이 있다.⁴²

이와 같이 선군정치는 김정일정권의 주요 통치방식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내세운 이러한 선군정치는 군대를 통해 체제동요의 방지와 결속도모함은 물론 외부 적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체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경제건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군을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선군정치의 논리는 오늘날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북한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Ⅲ. 개별 통치담론들의 실천상 특징

1. 붉은기 사상

첫째, 북한은 붉은기 통치담론 실천을 위해 순수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이론적 변용을 시도하였다. 여기서 순수이데올로기의 이론적 변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순수이데올로기와 실천이데올로기에서 본질적 요소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고 이를 현실의 요구에 맞도록 형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변용된 통치담론은 구성원들에게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⁴³

주지하다시피, 탈냉전 직후부터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 이전까지 북한의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면 북한의 상위수준에서의 최고목표는 체제를 온전히 보전하는 데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주어진 환경조건에서 제한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러한 목표에 이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극도로 피

⁴² “인민군대의 고상한 군인품성을 적극 따라 배우자,” 『로동신문』, 2004년 1월 24일.

⁴³ 박형중 외, 『김정일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15.

폐한 경제상황하에서 북한이 활용 가능한 자원은 비물질적 요소인 ‘사상’밖에 없었으나, 사회일탈과 체제분열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주체사상은 효력을 크게 발휘할 수 없었다. 결국, 주체사상의 대주민 통제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 순수이데올로기의 변용을 통한 통치담론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이는 북한이 붉은기 철학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전기를 밝힌 것이라고 하는 점, 즉 주체사상의 하위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특히 붉은기 철학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의 근본원리를 밝힌 심오한 혁명철학”이라고 정의하고, 그것은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야 한다는 주체의 혁명철학이고 일심단결의 철학이며 신념의 철학”이라고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도 이론적 변용의 흔적이 역력하다. 또한 혁명적 군인정신과 수령옹위 결사정신을 실천적 지침으로 강조하였는데, 수령옹위 결사정신은 주체사상에서 강조되는 혁명적 수령관을 변용하여 이를 실천지침화 한 것이다.⁴⁴

둘째, 전위대를 구축하고 이를 붉은기 사상의 실천에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일성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구축이다.⁴⁵ 이는 김일성 생존시에 조직되었던 ‘조선사회주의청년동맹’이 1996년 1월 19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그 명칭과 일부 조직을 개편하여 ‘붉은기 사상’ 실천사업에 매진하게 한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조직을 중심으로 청년동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육과 당 정책 선전선동활동을 집중 실시하였는데, 당면한 대내외 정치·경제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동맹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셋째, 강력한 대중운동 동원의 일환에서 극단적인 내핍의 감내와 낙관적인 혁명정신을 고취하였다. 여기서 극단적인 내핍의 감내는 앞서 언급했던 ‘고난의 행군정신’으로서 이는 붉은기 사상이 본격화되면서 강조된 것이다. 1996년 1월 1일 로동신문 사설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사회주의 3대 진지를 튼튼히 다지며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⁴⁶ 라고 하면서 붉은기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고난 감내의 필요성을

⁴⁴ 정성장, “김정일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 ‘붉은기 사상’과 북한 체제의 변용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 (1999), p. 312.

⁴⁵ 조선로동당의 외곽단체인 청년동맹은 당과 수령의 사상과 정책을 대중에 교양하는 사상 교양단체이다. 당의 인전대로서 청년동맹은 혁명과 건설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청년들을 “정치, 사상, 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우고 조직을 통하여 끊임없이 단련시키며 혁명적으로 교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 『북한의 이해』를 참조.

언급했다.

한편, 고난은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과 이에 따른 사회일탈 현상 등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김일성이 사망하고 미국과의 핵문제까지 겹치면서 찾아온 중첩적인 위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가 높은 새로운 담화 즉, ‘고난의 행군정신’을 내세워 이를 북한주민들에게 주입하고자 한 것이다. 북한은 위기 때마다 이러한 ‘고난의 행군정신’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김일성이 항일빨치산 활동을 하던 1938년 당시와 1956년 8월 종파사건을 전후한 시기, 그리고 1995년 이후이다. ‘고난의 행군’은 1998년과 1999년에 ‘사회주의 강행군’을 거쳐 2000년에는 ‘구보행군’으로, 2001년에는 ‘진군’으로 변모하였다.⁴⁷

2. 강성대국론

첫째, 통치담론 실천에 앞서 각종 법규와 제도를 정비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정권기관 안에 당의 결정과 지시를 무조건 집행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 밑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강한 혁명적 규율과 질서 확립을 도모하였다. 헌법 개정을 통한 국방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국방위원장의 최고통치자로서의 막강한 권한부여는 이의 대표적인 경우이다.⁴⁸ 또한 경제 부분에서도 과감한 제도개혁과 체제 정비를 통해 경제발전의 동력을 구축하였다.⁴⁹ 특히 강성대국론은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경제강국 건설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개혁조치를 실시하였다.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조치에 대한 큰 틀은 관련법의 개정, 즉 북한경

⁴⁶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자 사설.

⁴⁷ 배성인, “김정일체제의 지배담론: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p. 46.

⁴⁸ 헌법 개정 이전 헌법상 최고 직책이었던 주석직과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을 폐지하였다. 개정된 헌법은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고 그 권한을 확대하였으며, 최고인민회의를 상설화하였다. 또한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이자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하여 북한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기관으로 격상시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00조 내지 제105조, 제111조, 제117조, 제120조 등을 참조.

⁴⁹ 경제운용체제와 관련하여 1998년 9월에 개정된 북한 헌법은 첫째, 국가 소유보다 느슨한 공적소유 형태인 집체소유 영역을 농업이외의 부문으로 확대(제2장 제22조), 둘째, 개인의 상업활동 범위를 기존의 ‘개인부업경리’에 더해 ‘합법적인 경리활동’의 영역으로 확대(제2장 제24조), 셋째, 독립채산제와 원가 및 가격, 수익성 등 경제효율성 제고를 위한 계획경제 기제의 개선을 명문화하고 있다. 오승렬, “북한 김정일시대의 경제정책,” 『북한체제의 현주소』 (서울: 통일연구원, 2002), pp. 107~108.

제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둘째, 이와 같은 실천기반을 바탕으로 담론 실천을 위한 세부실천 과제들을 추진해 나갔다. 특히 경제강국 건설에서 실리강조와 경제관리의 개선조치는 강성대국 통치담론이 정책 지향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실리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바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공장과 기업소들이 경제관리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⁵⁰

2001년에는 ‘신사고’⁵¹운동을 통해 적극적인 경제정책 변화를 모색하였는데, 강성대국론을 정보산업에 접목시켜 그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신감을 조장하는데 기치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최근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정보기술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특화하여 경제를 회생시켜 경제적으로 강성대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학기술 중시와 연결되는 것으로써 북한의 강성대국 달성에 필요한 주요 전략 가운데 하나이다. 2000년 7월 4일 발표된 “과학중시 사상을 틀어 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라는 제하의 신문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고,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과 잠재력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경제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다. 오늘날의 자력갱생은 과학기술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면서 과학기술 발전이 강성대국 발전 전략의 요체임을 피력하였다.⁵²

북한은 2002년에는 ‘7·1 조치’를 통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일보한 자본주의적 방식으로의 경제변화를 시도하였다. 물론, 북한의 이러한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보적인 단계의 외자유치 노력이 있었고, 1984년에는 ‘합영법’⁵³을 채택한 바도 있다. 또한 1991년에는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

⁵⁰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 82.

⁵¹ ‘신사고’의 배경은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 고수하였던 체제유지 전략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한 데서 나온 것이다. ‘신사고’에 따른 새로운 정책은 소련이나 중국에서 처럼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체제개혁 방식이 아니라, 체제를 온존시킨 채 과학기술 육성과 정보기술산업으로 ‘단번도약’을 해보겠다는 것이 ‘신사고’의 핵심이다. 서재진, 『북한의 ‘신사고론’의 의도 및 내용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1~8.

⁵² 『로동신문』, 2000년 7월 4일.

⁵³ ‘조선합작경영법’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북한이 1984년 외국인의 북한투자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제이다. 합영법제는 1985년의 합영법 시행세칙, 합영회사 소득세법, 외국인소득세법 및 이들 법규의 세칙으로 구성되었지만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을 주축으로 한 해외동포의 대북투자를 제외한 서방국가들의 북한 투자를 유치하는 데 실패하였다. 이후 북한은 외국인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보완에 나서 1992년 10월 16일 합영법 시행규칙을 제정하였다. 1994년 1월에는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으로 (신)합영법을 제정하였다. 동

경제지역으로 선포하며 경제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2년의 ‘7·1 조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7·1 조치’의 주요 내용은 가격과 임금의 대폭적인 인상, 기업의 경영 자율성 확대, 식량과 생필품 배급제의 단계적 폐지, 환율 및 관세조정 등에 관한 것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식부문의 경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절대적이었다. 특히 거시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급능력의 확대가 관건이 되는데, 이는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자력으로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보면, ‘7·1조치’의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대외경제 활성화 여부에 달려있다.

북한은 ‘7·1조치’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 조건을 나름대로 갖추기는 했으나 2002년 9월 ‘신의주특별행정구’ 설치를 발표하고,⁵⁴ 이어 11월에는 ‘금강산관광지구법’⁵⁵ 및 ‘개성공업지구법’⁵⁶을 공포함으로써 거시경제 활성화 부분에 총력을 기울였다.

셋째, 북한이 강성대국 담론의 실천과정에서 중요하게 취급했던 분야 가운데 하나는 바로 대외 분야이다. 대외관계는 그간의 국제고립 탈피와 이미지 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대내외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외교의 범위와 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관계는 특정 권역에 치중되지

법에 따르면,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공화국 영역 안에 합영기업을 창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의 ‘합영법’ 제2조 참조.

⁵⁴ 북한은 2002년 9월 12일, 북한에서 외국자본 유치 및 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평가되던 평안북도 신의주지역이 ‘신의주특별행정구’로 지정되었다고 발표하면서, ‘신의주 특별행정구’는 특수 행정단위로서 중앙이 직할한다고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2년 9월 12일. 신의주 특구의 형태와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신의주 특별행정기구 기본법’은 총 6장 101조 및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경제·문화 및 주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기구, 구장(區章), 구기(區旗)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본법에 의거하여 신의주 행정특구는 독자적인 입법·행정·사법권을 부여받고 있다.

⁵⁵ 동법은 2002년 11월 13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으며, 총 2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 제정의 주요 목적은 기본적으로 관광지구의 개발과 관리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강산의 자연생태 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있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관광은 남측 및 해외동포들이 하며, 외국인도 금강산을 관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강산관광지구법’ 제1조, 제2조; 신영호, “금강산 관광지구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북한법연구』, 제6권 (2003), pp. 155~180.

⁵⁶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년 11월 2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었는데, 동법은 개성공단만의 기본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5장 4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법은 이 지역의 개발과 관리, 관리기관의 기능, 지구 내 기업창설과 운영, 분쟁해결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법은 북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로는 최초로 남한 기업의 투자 진출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개성공업지구법’ 제3조, 제2조, 제10조 참조.

않는 이른바 전방위 외교형태로 전개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미·일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한 대외경제원조 및 지원에 비중을 두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수의 유럽연합 회원국들과도 수교를 함으로써 외교영역을 다변화시켰다.⁵⁷ 특히 북한이 유럽연합국들에게까지 외교영역을 확장시킨 것은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지원을 유도하고, 수출증대를 통해 외화를 획득하려는 정책적 의지로 볼 수 있다.

3. 선군정치

첫째, 다른 주요 통치담론들과 마찬가지로 담론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작업부터 시작하였다. 헌법개정 이전 북한은 1997년 7월 3일자 로동신문을 통해 “총대우에 평화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다. 군대를 틀어쥐지 않고서는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없다”⁵⁸라고 강조 하였는데, 이는 북한에서 군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선군정치 실천수단의 일환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선군정치 실현을 위한 기반 확보에 착수하였다. 즉, 1998년 헌법개정에서 주석직을 폐지하고 기존의 국방위원회를 국가주권의 최고 지도기관이며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으로 승격시켜 국방위원회에 나라의 모든 정치, 군사, 경제적 역량을 총지휘할 수 있게 만들었다.⁵⁹ 이에 따라 국방위원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력량의 총체를 통솔 지휘하며 조국방위와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전반사업을 조직 령도하는 국가의 최고직책”⁶⁰이 되었다. 이렇게 됨으로써 김정일은 당권과 함께 국방위원장직을 겸함으로써 북한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자가 된 것이다.⁶¹

⁵⁷ 북한의 대유럽 연합 수교배경 및 현황에 대해서는 김태운, “북한의 대 유럽연합 수교현황과 그 배경에 관한 연구,” 『정치·정보연구』, 제5권 2호 (2002)를 참조.

⁵⁸ 『로동신문』, 1997년 7월 3일.

⁵⁹ 국방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당·군관계에서 당의 군에 대한 영도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당적 영도원칙’하의 ‘선군혁명 노선’이라는 선후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 서이다. 즉, 군에 대한 대내적 통제 메커니즘은 당조직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 과정의 비교분석』, p. 170.

⁶⁰ 『로동신문』, 1998년 9월 6일.

⁶¹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 <<http://210.204.178.130/servlet/board.pub>> (검색일: 2005. 2. 16).

2004년 6월 28일자 로동신문은 국방위원회가 “선군영도체제의 중추”⁶²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선군정치 통치담론이 하나의 정책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제도화를 바탕으로 세부 실천과제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제도화를 발판으로 하여 대내외적 측면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을 크게 강화시켰다. 이는 우선적으로 군부 인사들의 정치서열 상승으로 나타났다. 2003년 8월 3일 제10기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통해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에 재추대되고, 군부인사들의 권력서열이 선군정치 등장 당시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부의 위상 제고를 통해 이를 통치담론의 실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³

둘째, 현재 군은 군 본래의 기능 이외에 대내 경제건설, 국내에 사회규범을 제공하는 역할은 물론 대외적으로 대외교섭의 기반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선군정치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⁶⁴ 무엇보다도 대내경제 회복을 위한 내부 가용자원으로 군을 경제활동 전 분야에 걸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는 농업현장뿐만 아니라 토지정리사업·철도·전력 등 국가 산업 전반에 걸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현재 군대를 경제현장에 동원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군대 따라 배우기 운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생산도 학습도 인민군대처럼!’ 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군대를 하나의 모범적인 모델로 내세우는 등 정치적 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군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군대는 식량난을 줄이기 위한 식량생산기반 확충사업과 인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다지기 위한 생산시설기반 확충에 중점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금강산-원산’간 철도공사, ‘평양-남포’간 고속도로 공사, 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2000년 10월에 완공된 ‘안변청년발전소’ 건설과 북창화력발전소 전력설비 보수 공사 등에 군이 동원되었던 것은 이의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된다.⁶⁵ 또한 군수산업 강화를 통한 외화획득 사업에도 군이 막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국방위원회 산하 제2경제위원회가 관장하는 군수산업 부문의 외화획득, 외화벌

⁶² 류용식·최승필·고현주, “천하를 다스리는 무적의 장군,” 『로동신문』, 2004년 6월 28일.

⁶³ 현재 북한의 권력 서열은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서열 3위)를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위원 전원이 공식서열 20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다.

⁶⁴ 오일환, “김정일시대 북한의 군사화 경향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1집 3호(2001), p. 223.

⁶⁵ 김철우, 『김정일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평양출판사, 2000), pp. 216~234.

이 사업이 그것이다.⁶⁶

셋째, 북한은 여러 형태의 선군정치 토론회를 통하여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강조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경우는 2001년 2월 20일 평양에서 개최된 학계, 언론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토론회로서 선군정치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해 주는 완성된 정치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 같은 해 12월 4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등의 단체들이 선군정치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들 단체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군인을 친혈육처럼 아끼고 원호함으로써 군민일치 운동을 사회에 확산시키자고 강조하였다.

또한 대주민 사상교양 강화를 통한 실천전략으로서 북한은 ‘선군혁명실록’을 이용하고 있다. 이는 ‘선군혁명실록’을 단순한 역사기록물이 아닌 생활의 교과서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⁶⁷ 생활의 교과서를 통해 ‘혁명적 군인정신’을 북한주민들에게 주입하여 이를 선군정치 실천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에서의 군대는 대내 정치적 안정과 경제건설을 위한 동력이자 돌격대인 것이다.⁶⁸

넷째, 선군정치 담론도 붉은기 담론처럼 순수이데올로기의 변용화를 통해 이를 실천과정에 적용시켰다. “선군사상은 주체사상의 원리와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 지침”⁶⁹이라고 하는 북한의 주장을 보더라도 선군정치 담론이 그 실천과정에서 순수이데올로기적 변용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외협상용 자원으로 군을 활용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외 협상 수단 가운데서도 미사일을 통한 군사적 위협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 등과의 협상과정에서 그 효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1998년 8월 김정일 정권의 공식 출범에 즈음한 ‘위성발사’ 사건은 북한의 이와 같은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 통치담론은 그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순수이데올로기의 변용과정을 거쳐, 현재 당과 국가를 이끄는 견인차로서 존재하며,⁷⁰ 북한의 체제를 이끌어 가는 군부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논리로서 기능

⁶⁶ 김용현, “북한군의 성격과 구조,” 민병천 외, 『북한학 입문』 (서울: 들녘, 2001), pp. 116~117.

⁶⁷ 정창준, “4대군사노선과 선군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민연구소 편, 『정세동향자료집』, 통권 제25호 (2002년 7월호), p. 8.

⁶⁸ 오일환, “김정일시대 북한의 군사화 경향에 관한 연구,” p. 227.

⁶⁹ 『로동신문』, 2004년 7월 7일.

하고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토대로 하여 볼 때, 붉은기 담론과 선군정치 담론은 체제의 위기 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강성대국론은 체제도약을 위한 정책 비전을 가지고 있다. 붉은기 담론과 선군정치 담론은 탈냉전의 도래와 김일성의 사망 등 체제 와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나타났으며, 강성대국론은 체제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던 시기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강성대국론에서 집중적으로 강조되는 경제강국 건설, 실용주의적 태도 견지, 과학기술 중시 등은 체제도약을 위한 정책적 요소로 간주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한편 이들 통치담론은 그 내용에 있어서 김정일시대 북한에서 사상과 군대가 체제 운영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즉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론, 그리고 선군정치는 각각 별개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통치담론이 아니다. 이들은 사상과 군을 연결고리로 하여 상호 유기적 관계 하에 있다. 또한 주요 통치담론들 모두가 대중동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아울러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실천적 지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통치담론 실천과 관련하여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은 이의 실천에 앞서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실천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붉은기 담론과 선군정치 담론은 그 실천에 앞서 기본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의 변용이 있었다. 또한 선군정치와 강성대국론은 헌법개정과 각종의 제도 정비를 통해 세부 실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선군정치는 헌법상 국방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격상시킴으로써 군부의 사회, 정치적 활동기반을 확장하였다. 강성대국론 역시 헌법개정과 함께 각종의 경제개혁 조치 등을 단행하여 통치담론 실행에 이를 적극 활용하였다.

김정일시대 핵심적인 통치담론들의 지속 및 적용 여부에 대한 전망을 보면, 이들은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따라 그 강조의 정도가 달라질 뿐 향후에도 북한사회를 운영·통제하는 지배 담론으로 계속 존속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⁷⁰ 김근식, “김정일시대 북한의 신발전전략,” 『국제정치논총』, 제43집 4호 (2003), p. 205.

담론들이 주체사상의 퇴조나 약화를 초래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들이 주체사상의 하위 이데올로기이자 하나의 담론이라는 점에서 기본 이데올로기인 주체사상을 약화시키거나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이 주체사상을 선군정치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적 지침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도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다. 결국 이러한 통치담론들은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주체사상의 자기 수정적 변용의 결과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요 통치담론들은 주체사상을 대체하기보다는 통치담론으로 존속하면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그 강조점을 달리하는 등의 다소 유동적인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우선 붉은기 사상은 북한체제가 내적으로 안정되고 대외 환경이 개선될수록 그 강조의 정도가 약해질 것이다. 북한의 붉은기 사수에 대한 핵심은 무엇보다도 사상적 무장을 통하여 체제를 수호하는 것에 있는 만큼, 대내적으로 체제와 해 위기나 외부 세력으로부터의 체제위협이 감소된다면 그 강조의 정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붉은기 담론이 실천적 성격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엄격히 보면 과거지향적 성격이 강한 담론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강성대국론은 김정일시대 북한체제의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비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즉, 강성대국론은 사상에서부터 군사·경제 등에 이르기까지 체제수호 및 발전 정책 전반을 담고 있는 미래지향적 담론이다. 따라서 이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관계없이 그 강조의 정도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강성대국론에서 경제강국 건설의 기치는 김정일 시대의 신발전전략 가운데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강조될 것이다. 최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잦은 중국방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군정치와 관련하여 보면 북한에서는 2000년 이후 주요 통치담론들 가운데서 붉은기 사상보다는 강성대국론이나 선군정치가 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군정치는 체제보전을 위한 최후 보루이자 경제문제 해결사로서 그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주체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당의 정치방식”이라고 강조하는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군정치가 결코 일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임시방편적 조치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선제공격 대상에서 자신들이 결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라크전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아울러 핵 문제가 장기화되

면 될수록 경제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군은 대내외적으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정치·경제를 비롯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체제수호의 안전핀 역할을 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협상력 제고에 필요한 다양한 수단들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한의 통치담론들은 한동안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논리들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사상과 군대가 북한 체제 운영의 핵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류 협력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핵문제도 북한이 주장하는 통치담론인 선군정치나 강성대국론의 주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 접수: 3월 21일 / ■ 심사: 6월 2일 / ■ 채택: 6월 20일